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AI 투자 위축 우려로 하락

빅테크의 AI 개발 속도 지연 우려로 펄 반도체 지수 5%대 급락
유가 불안 지속되며 미 국채 10년물 5% 선 장중 상회

▶ 주요 지표 일일 등락률

S&P 500	7,619.98pt	-0.48%
DOW	52,421.20pt	-0.29%
NASDAQ	26,186.41pt	-0.56%
STOXX 600	635.99pt	-0.49%
美 국채 10년물	4.99%	2.06bp
美 국채 2년물	4.66%	3.24bp
달러 인덱스	99.46pt	0.34%
국제 유가 (WTI)	\$101.39	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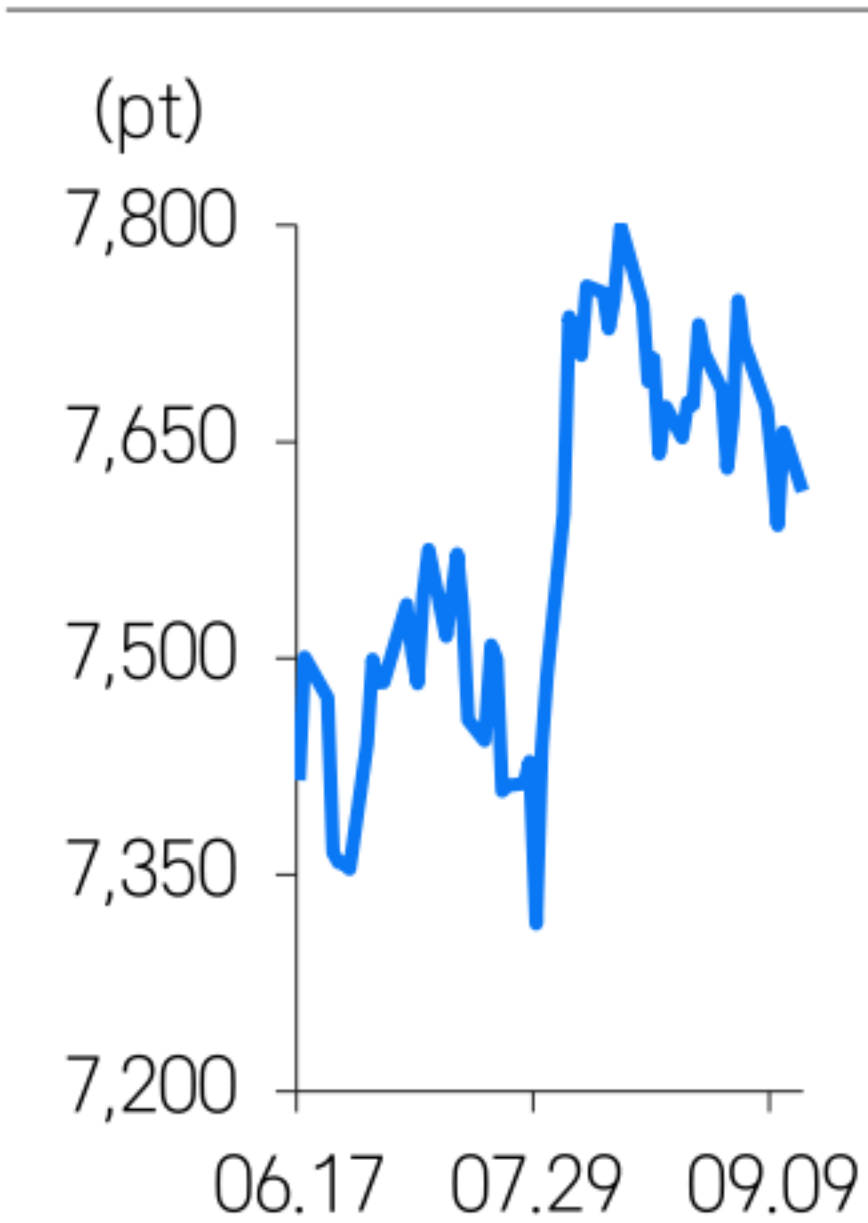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AI 투자 위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급등이 시장 금리 상승세를 재차 자극한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말간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별도의 서한을 통해 AI 시스템이 인류 전체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OpenAI의 샘 올트먼과 SpaceX의 일론 머스크 등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투자자들은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Microsoft 역시 인간 중심의 안전한 AI 모델 개발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을 고려했을 때 AI 개발 지연은 실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며칠 사이 일어난 속도 조절 주장은 음모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SNS에 게재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 빅테크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후발 주자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수 IB들은 실제 개발 속도가 늦춰지거나 관련 투자가 축소될 확률은 낮다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S&P500은 0.48%, DOW는 0.29% 하락했습니다. NASDAQ은 0.56% 내렸고, 펄 반도체 지수의 경우 5.86%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메모리 기업 ETF인 DRAM 역시 7.28%의 큰 낙폭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각각 3.36%, 4.77% 내리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 최근 AI 기술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알파벳과 메타, 그리고 Microsoft는 2~3%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AI 대체 위협에 시달리던 소프트웨어 섹터들도 견조했습니다. S/W업체 ETF IGV의 경우 5.04%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레이딩 부문의 수익 감소 가능성을 경고한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날 5.14% 내렸고, 이에 여타 대형 은행주들 또한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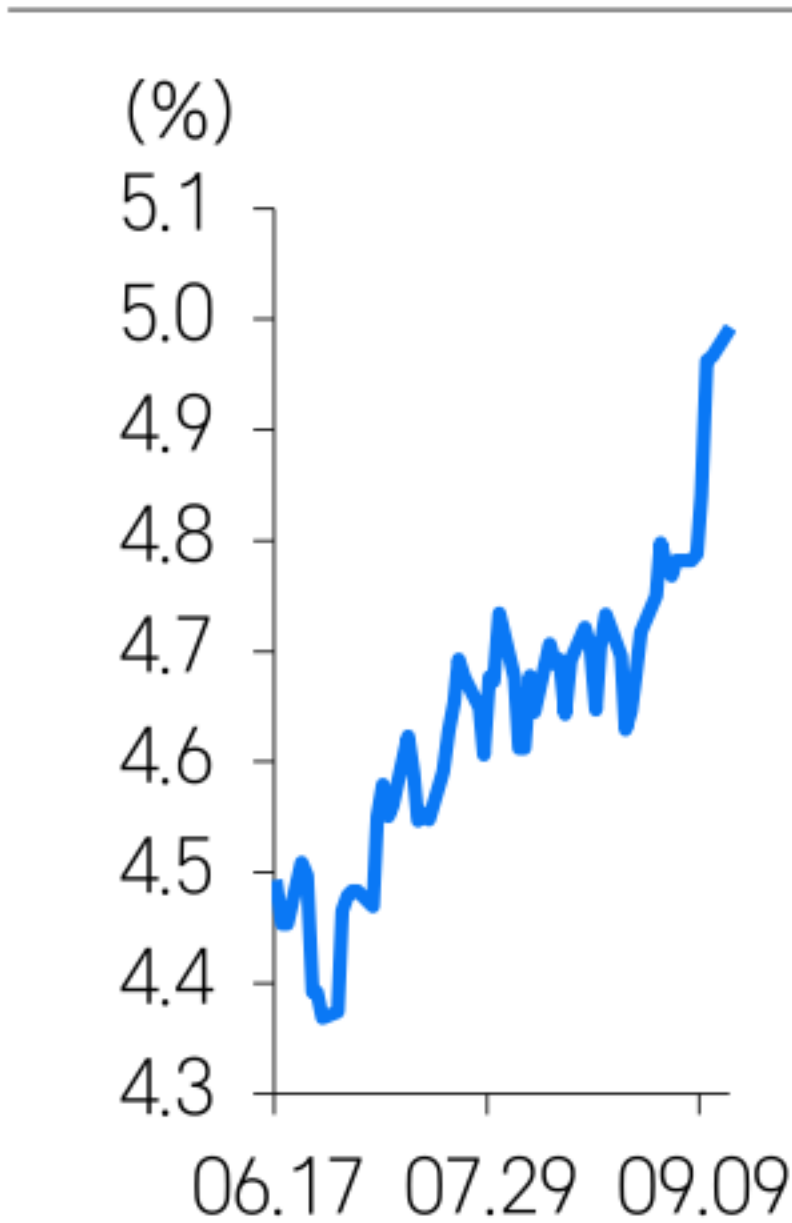
당일 WTI 유가는 1.34% 오른 101.39 달러를 기록하며 금리 상승세를 다시금 부추겼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의 경우 3년 만에 5.0%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에서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던지시 내비침과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상호 간의 에너지 시설 타격은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유가를 의식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P500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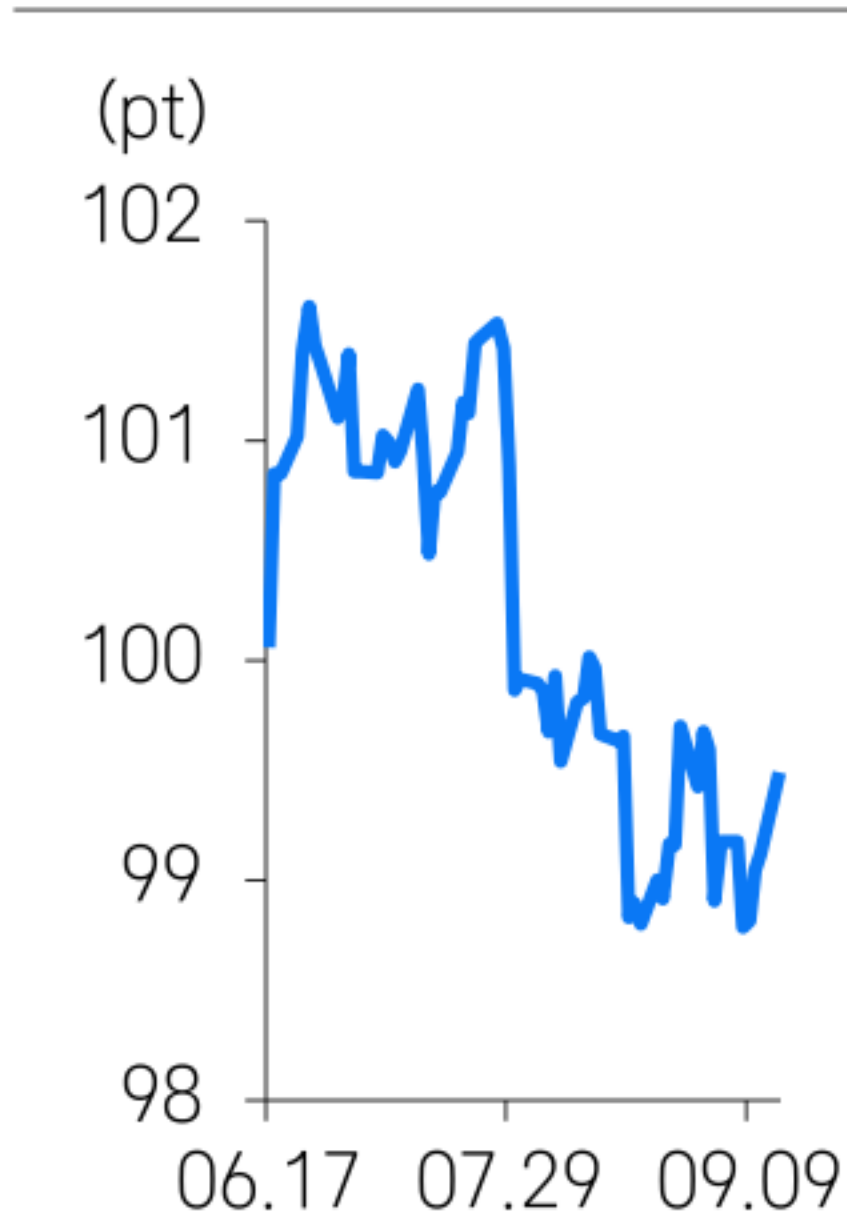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美 국채 10년물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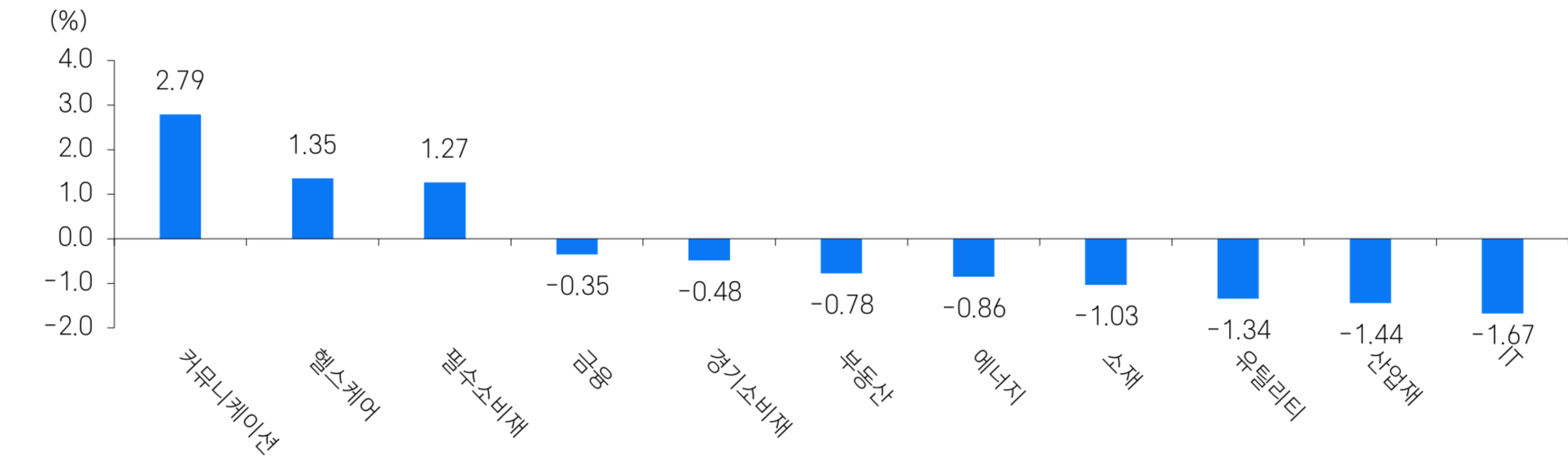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달러 인덱스 3개월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업종별 수익률



참고: S&P500 GICS Level 1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P100 수익률 상하위 종목

▲ UP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서비스나우	7.4	정보기술
2	액센추어	6.0	정보기술
3	인튜이트	5.5	정보기술
4	어도비	5.3	정보기술
5	세일즈포스	4.7	정보기술

▼ DOWN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GE 버노바	-8.6	산업재
2	램리서치	-8.3	정보기술
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	-7.1	정보기술
4	인텔	-5.6	정보기술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3	정보기술

참고: 섹터는 GICS Level 1 섹터 분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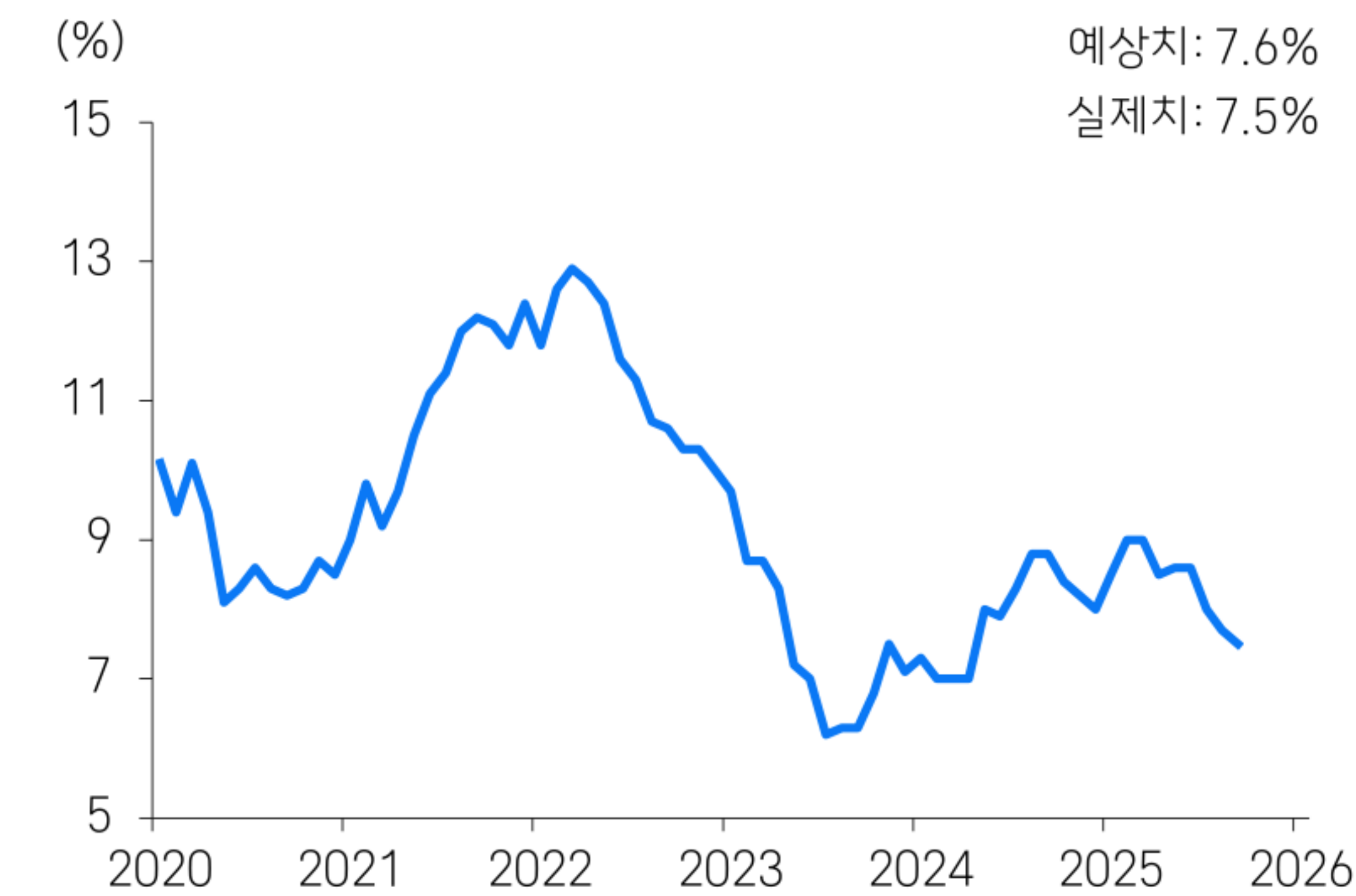
한국 인덱스 관련 지표

지표	수익률	1주일	1개월
MSCI KOREA ETF	-6.62	-6.70	-1.9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86	-5.15	-10.35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1.13	-3.09	-1.03
MSCI EM ETF	-2.73	-3.94	-0.93
NDF 원화 환율	-0.33	-0.45	4.88

참고: ETF는 iShares ETF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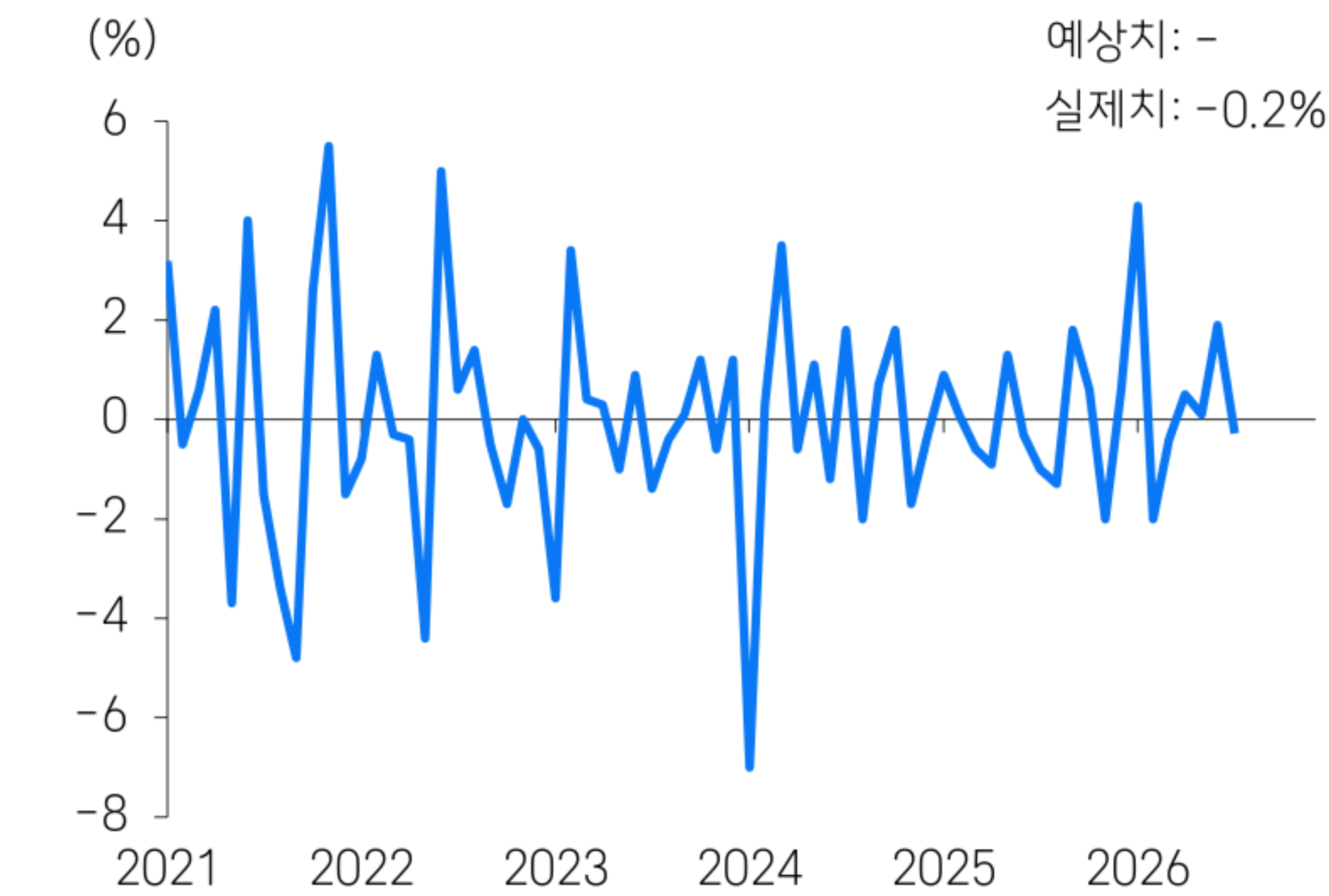
주요 경제 지표

8월 중국 통화공급량(M2)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8월 일본 광공업생산 전월 대비(MOM)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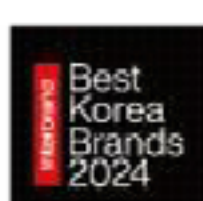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